

學事日程과 學生指導

朴 贊 葵
(中央大 統計學科 教授)

I. 序 言

大學學期 改善方案의 施行計劃에 따르던 지금까지의 1학기 20週, 2학기 16週는 均衡的인 敎育을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雜多한 學生行事를 맡기 않아 1, 2학기 모두 13週정도의 수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생활환경도 많이 변했다고 하면 外國에서 研究 實施되고 있는 多樣한 學期制를 우리 生活패턴을 考慮하지 않는 次元에서 研究하고 改善하여 適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새 學期制에 의하면 1, 2학기를 모두 16週로 하며 放學期間을 20週로 늘림으로써 특히 夏季 放學 12週를 效果的으로 運營한다면 高度産業·情報社會에 필요한 高級人力을 養成 輩出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學期制는 美國의 '早期 2學期制'의 長點을 발전적으로 改善한 모델이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84學年度부터 이 새로운 學期制에 의하여 大學의 學事日程이 運用되어 學期中의 行事로 인한 學科目授業의 中斷現象을 초래하지 않게 되면 充實한 敎育計劃의 施行을 可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다. 해방 후 40년의 긴 大學歷史속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定着해버린 學生行事, 그것도 學事日程속에 들어가 있는 學生行事를 放學中으로 옮기는 데서 오는 저항을 어떻게 解消시키며 또 그것이 可能한가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敎育의 역할로서 주어지는 敎育方法의 改善이나 敎育條件의 改善을 통하여 先進國型으로 變化시킨다고 해서 學生들의 姿勢가 하루 아침에 바뀐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大學行政의 次元에서도 당연히 學生行事는 學期中에 실시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敎育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學期制의 變化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大學敎育의 質的 向上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革新的인 變化라도 勇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논의의 方向을 學期制變化의 當위성과 時代的 要請에 對應한 學生들의 姿勢志向을 士氣로 하여, 새로운 學期制施行에 따르는 學事日程과 學生指導 그리고 學生組織의 새로운 모델의 試案을 제시함으로써 現實的이고 肯定的인 解答을 얻고자 한다.

II. 學生指導體制的 變化

먼저 지난 30여年間に 걸쳐 重要하게 나타났

던 學生指導體制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學問中心 指導體制

1960年 4·19學生義舉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大學은 비록 「牛骨塔」이라는 좋지 못한 別名이 붙여지긴 했으나 '學問의 殿堂'으로서 役割했으며 이것은 教授·學生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1개 大學이 收容하는 學生의 規模도 500名에서 1,500名線을 유지하였고, 교수 한사람당 學生數도 20~25名 이어서 安定된 教育을 進行할 수 있었다.

6·25動亂으로 充實한 教育을 받지 못한데다가 日淺한 우리의 大學教育이고 보면 學生들은 교수와의 對話를 最上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學問의 傳受라는 時代的 使命을 완수하는 것이 大學生들에게 부여된 基本的인 責任이라는 思考는, 學徒護國團 組織에서 學生會 組織으로 移行되는 과정에서도 各 大學, 學科를 中心으로 하는 學會가 學生活動의 優位에 놓여지게 하였다.

따라서 大學과 學科에 所屬된 교수들은 學會活動을 통하여 學問的인 指導를 할 수 있었으며 교수와의 對話 그 자체가 새로운 學問의 흐름에 대한 세미나로서 역할할 수 있었다. 이러한 師弟間의 분위기는 身上문제나 價值觀의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大學의 自由가 교수·학생 모두에게 感知될 수 있었던 時代라고 하겠다.

2. 身上中心 指導體制

그러나 4·19이후 學生들의 現實參與意識이 높아지고 政治現實에 대한 反抗과 學校의 企業化 經營姿勢에 대한 是正要求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교수와 학생 사이의 情緒 어린 人間的 분위기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學生 개개인에 대한 「指導카드」가 별도로 만들어졌으며, 公式的인 面談時間의 設定과 學生指導研究所의 設置에 의한 學生問題의 多角的인 分析이 실시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擴大되어가는 經濟規模에 따라서 副業알선과 職場알선 등 身上問題의 해결도 교수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學生들의 思考에서 6·25動亂의 참혹함과 北韓

의 非人道的의 處事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고 經濟開發의 成果가 뚜렷해지면서 學生들의 價值觀은 急變해 갔다. 1個 大學의 學生規模도 60年代에 平均 2천명선을 넘어서게 되었고 集團的인 示威의 內容도 점점 激烈해지면서 早期放學이나 學業이 중단되는 不幸한 事態로까지 빠져들어 갔다.

여기에 교수들에게는 學生指導라는 새로운 役割이 부여되었고, 가르치는 의무와 대화하는 즐거움으로 師弟間의 정감을 깊게 했던 50年代의 大學과는 判異한 方向으로 進行되어 갔다.

3. 綜合的인 指導體制

1972년에 마련된 維新憲法은 大學街에 데모의 '피크'를 이루게 했으나, 1974년의 越南共產化와 成功的인 經濟開發計劃으로 운택해진 國民生活의 變化는 데모의 性格에 變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大學에 있어서 majority group이 되어야 할 學究派學生보다는 minority group이 되는 非學究派(?)—당시 政治學生이라는 칭호가 붙기도 했다가 大學의 면학분위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현상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學生組織의 學徒護國團 體制로의 轉換이 이루어지면서 교수의 학생지도를 위한 義務條項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世界的인 現象으로 나타난 高等教育의 革新計劃에 따라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大學教育改革을 위한 研究와 그 成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外國에서 공부한 많은 젊은 교수들이 각 대학에 收容되어 70年度에 7,779명이던 4年制 大學의 教授數는 80年度에 그 倍인 14,610명으로 증가되었으나, 大衆化되어 가는 大學의 학생수는 1970年度 140,450명의 3倍인 407,037명으로 증가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0명선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加重시키는 일로서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요구, 학교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요구의 複合的인 성격 아래 형성되는 學生集團을, 學科 學年別의 擔當 指導教授制와 서를 指導教授制에 의해 지도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교수가 道義的 責任을

지는 결과까지 招來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大學이 가르치는 일 못지 않게 카운셀링이나 가이드스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지난 십수년간 外國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一部 교수들에게는 綜合的인 指導體制가 하나의 逆機能으로 받아들여 지기도 했다.

Ⅲ. 大學의 內外的 變化

1. 밖으로부터의 變化

1970年代 後半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物質的이고 精神的인 側面에서의 빠른 變化는 教育理念이나 價値觀의 變化 등 教育的 側面에서의 變化 역시 西歐 여러 나라의 大學들이 發展해 나온 것과 같은 革新的인 變化를 社會變화와 더불어 受容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大學 外部로부터의 變化가 大學教育의 質과 量 그리고 價値에 있어서의 變化를 隨伴하게 하였던 바 그 主要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1) 競爭原理의 광범한 適用: 競爭原理가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들의 社會進出의 鍵 關門에 適用됨에 따라 高學歷時代, 교육기회의 不平等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2) 人力需要의 充足原則: 오늘의 계약社會에서는 전통적인 「學問의 殿堂」이라는 大學의 위치는 빛을 잃고 人口폭발에 따라 部門別 人力需給의 문제가 擡頭하게 되었다.

(3) 實用主義思想의 팽배: 高度의 知識 및 情報社會의 到來는 大學의 機能을 人本主義理念에서 아닌 商品的 價値가 있는 지식과 정보, 즉 職業의 細分化에 따라가는 變化를 맞게 하였다.

(4) 小市民的 思考의 학원침투: 經濟成長과 生活安定 그리고 經濟的 富의 都市集中現象은 市民的 安定을 希求하는 生活感情이 學園에까지 침투함으로써 學生들의 價値觀形成에 새로운 樣態를 誘發시키게 되었다.

2. 大學自體에서의 變化

이와 같은 社會的 變化의 급격한 학원내의 침투는 人口의 증가, 급속한 經濟成長의 결과로 해

서 肯定的 側面에서의 大學自體의 變化를 齊來하였을 뿐만 아니라 否定的 側面에서의 變化라는 결과도 가져왔다. 그 主要한 變化를 列擧하면 아래와 같다.

(1) 高等教育 人口數의 급증: 경제기획원 통계국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人口의 폭발적 증가를 나타낸 1970年代에 와서는 1945年の 大學人口 7,819명의 30배에 해당하는 238,719(75年度)명이 되었고 82年度에는 947,338명으로 人口 1,000명당 24.7명이라는 놀라운 比率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은 大學의 擴大라는 肯定的 次元보다는 施設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과 人本主義에 立脚한 教育을 실시하지 못하는 否定的 次元의 문제까지도 안게 되었다.

(2) 교수의 증가와 大學의 大衆化: 물론 經濟成長의 결과에 따라 海外頭腦의 많은 國內移入이 실현되었고, 60年度에 3,803명에 불과하던 大學教授가 82年度에는 20,137명으로 6배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학생수는 4年制 大學의 경우 26.6명에서 32.8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質的 向上面에서 아직도 水準級으로 끌어올리기에는 不足한 상태라고 하겠다.

더우기 大學의 大衆化에 따라서 몇 개 綜合大學은 25,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가 하면 大部分의 大學이 10,000명 이상을 수용하게 되었고 人口分散의 次元에서 이루어진 서울地域 大學의 分校設置는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되는 등 밖으로부터의 變化를 大學自體에서는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巨大化의 길을 걷고 있다 하겠다.

3. 學生思考의 變化

오늘의 학생은 卒業定員制에 고민하고 있다. 學業評價가 絕對評價에 의해서는 통과될 수 있는 學生도 相對評價에 의해 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교수에게 알기 쉬운 강의, 재미있는 강의, 職業世界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강의를 원한다. 학생들은 교수가 그들과 같이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현실적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원한다.

새로운 學習方法을 개발하여 발전적인 강의를

試圖하는 교수들의 요구는 과제물의 제출과 세미나에서의 발표가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학생들의 小市民的 思考로의 價値觀變化도 문제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과목의 레포트작성에는 시간도 없고 학교의 도서관 시설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른 次元에서 學生思考의 變化를 볼 때 學生組織의 巨大化에 따르는 劃一的인 活動에 권태를 느낀다. 지난 60年代에 비하여 오늘의 학생은 學生會가 主管하는 行事に 참여하는 比率이 아주 低調하다. 가까운 친구와 더불어 공부하고 놀기를 원한다. 뜻이 맞는 학생끼리의 서클활동을 오히려 원하며 自由스러운 男女間의 對話를 즐기는 형태로 變化해 가고 있다.

IV. 教育計劃과 學生指導 方向

1. 새 學期制와 學事日程

文教部에서 각 대학에 보낸 「大學學期 改善方案 施行計劃」의 主要部門은 12週로 확대된 夏季放學의 효율적인 活用과 授業充實化方案의 하나인 각종 學內行事的 放學中 實施 그리고 開講前에 登錄과 受講申請을 완료함에 따른 授業量의 擴充과 授業方法의 改善에서 오는 質的 向上的 講究라는 데 있다.

다음 新·舊學期 對比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 2學期 16週의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學事日程(academic calendar)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開校記念 行事期間—學生들의 祝祭期間—이 없어져야 하고 中間試驗과 期末試驗 期間으로 設定되는 것도 고려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大學教育改善의 一環으로 나타난 課題物 提出의 頻度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中間試驗을 레포트로 代替하고 있는 事例가 많은데 비추어 中間試驗 期間은 學事日程에서 빠져도 될 줄 안다.

그 대신 第1學期 期末試驗이 끝난 후의 夏季放學에는 第1學期와 연결되는 學事日程으로서의 썸머스쿨과 특별실습, 봉사활동 그리고 學生活動計劃이 追加的으로 插入됨으로써, 大學生活

〈表 1〉 學事日程 骨子の 例示

內 容	日 字
● 입학시험	1/12~ 1/14
● 합격자 발표	1/18
● 신입생 등록	1/19~ 1/21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15~ 2/17
● 재학생 1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2/18~ 2/21
● 83학년도 졸업식	2/18
● 제 1 학기 개강	2/23
● 84학년도 입학식	2/22
● 수강신청 정정	3/ 3~ 3/ 5
● 학기말 시험	6/ 7~ 6/14
● 학생 축제	6/15~ 6/16
● 하계 학기	6/17~ 7/14
● 봉사활동	7/15~ 7/28
● 제 2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8/25~ 8/28
● 제 2 학기 개강	8/28
● 수강신청 정정	9/15~ 9/17
● 개교기념일	10/10
● 학기말 시험	12/16~12/23
● 봉사활동	1/ 6~ 1/20

이 制度的 側面에서 定着될 수 있어야겠다.

學事日程의 骨子가 되어야 하는 假說的인 模型을 제시해 보면 앞의 表 1과 같다.

2. 學生活動의 革新的 變化

學生活動이라 함은 學徒護國團—학생회라고 부르기도 한다—이 主體가 되어 體育, 學術, 藝術, 奉仕에 걸친 活動과 下位組織인 서클이 전개하는 活動 등을 총망라한 것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主體이고 客體 역시 학생이라는 점에서 모든 학생이 얼마나 학생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學生活動의 價値가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學生 個個人의 思考方式의 變化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世界的 趨勢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겪어야 할 大學教育改革의 과정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공부 또한 生涯職業을 갖고 자하는 方向으로 要請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의 急速한 變化로 인한 小市民的인 생활패턴으로 進行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학생지도의 主役인 교수의 積極적인 姿勢가 필요하게

되고 學生들도 지난날의 學生活動에서의 學生의 位置에 연연하지 않는 '革新的 變化'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先進諸國의 學生회조직과 활동, 서울의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學生活動의 革新的 變化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學生회기구와 활동내용 그리고 活動방법의 一大變革을 이룩해야 한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면 그 骨子是 다음과 같다(男女共學 綜合大學의 경우).

첫째, 學生회기구의 발전적 축소로서 總務部, 學術部, 學藝部, 體育部, 女學生部の 5個 部署만 설치한다.

둘째, 學科別로 운영되고 있는 學會를 직접 學術部和 연계시켜 學術活動의 支援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셋째, 放學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봉사 활동은 總務部가 담당하며, 學藝部는 校誌發刊을, 體育部는 對外的인 體育活動과 관련하여 學生들의 愛校心을 북돋울 수 있는 역할을 담당케 한다.

네째, 여학생부는 總務와 學藝담당 次長을 두어 활동하고 女學生監과 협의하여 여학생에 관한 특수문제단을 다룬다.

다섯째, 체육대회는 단과대학별로 실시케 한다.

이러한 학생기구가 탄생되면 各部가 學生들의 利益을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에 적극적이 되고, 分擔의 명확성에서 오는 조직상호간의 문제성도 제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各 大學이 開校記念日을 前後하여 3~4日間에 걸쳐 개최하던 祝祭는 夏季放學의 시작과 同時에 心身의 피로를 잊게 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면 더욱 큰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학술적인 것, 예술적인 것은 週末을 이용한다든지 放課後를 이용함으로써 大學을 「매일의 24時間化」할 뿐만 아니라 운동과 오락 등에 의해 마음을 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生活패턴에 더욱 잘 適應될 수 있다고 본다.

3. 大學行政과 學生指導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를 成功的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財團과 大學行政 담당자의 적극적이고 奉仕的인 자세에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大學新聞과 放送活動은 이제 학생서클의 형태에서는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은 活動을 生涯職業과 관련시키는 학생이나 能力 있고 學費調達의 필요성을 갖는 學生에게 장학금을 지불해야 한다. 거기에 따르는 經費의 確保, 그들을 積極的으로 지도하는 교수에 대한 보답 등의 문제는 곧 財團과 行政擔當者의 자세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V. 結 言

筆者가 美國의 大學들을 시찰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事項을 서술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UCLA, MSU 등의 큰 대학이나 ITI, 뉴욕의 Wagner College 그리고 Columbia University 등의 學生회는 組織은 있으나 특별한 行市(美式 축구 경기 등)가 없을 때에는 相互間의 연락장소로 밖에는 이용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大學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게시판에는 '某某教授의 심령과학특강'이니 '某某教授와의 의상에 관한 對話' 그렇지 않으면 '放學中の 中東旅行者 모집' 등 그룹이나 서클이 중심이 된 活動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學生代表를 만나 이야기해 본 결과도 우리들의 눈에 띄인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圖書館에 들어가 課題를 完遂하는 데 거의 전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충분치 못한 IBM의 key punch를 이용하기 위하여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學生들의 태도였다.

우리는 20여년에 걸친 훌륭한 학생 지도의 경험을 갖고 있다. 모든 學生行市가 週末이나 放學期間을 이용하여 전개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大學行政이 奉仕的 姿勢를 갖고 施設의 擴充을 달성했을 때 美國 大學과 같은 모습으로 변경될 수 있다.

84學年度부터 실시되는 學期制는 특별한 變動을 齊來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그에 수반해서 나타나야 할 대학과 교수 그리고 學生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생활의 변화라는 점에서는 혁신적 변화라고 하겠으며 이를 追求하기 위한 團結된 教育者의 認識을 기대해 본다. *